



두터비 파리를 물고 두엄 우회 치드라 안자 **풍자**

탐관오리, 민중 재물, 권력, 위로 올라.

것년산 바라보니 백송골(白松骨)이 떠 있거늘, 가슴이 급죽하여 풀떡 뛰어 내듯다가 두엄 아래 잣빠지거고,
중장의 관리, 외세. **해학적** 깜짝 놀라.

모쳐라, 늘넌 넬식망정 에혈질 번헝쾌라. **풍자**

마침. 멍이 질 땀 하였구나. 자화자찬, 허장성세

< 해 석 >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올라 앉아

건너 편 산을 바라보니 흰 송골매가 떠 있거늘, 깜짝 놀라 펄떡 뛰어 내달다가 두엄 아래 넘어졌구나.

마침 몸이 날랜 나였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몸에 멍이 들 땀 하였구나.

갈 래 : 시조, 사설 시조

성 격 : 풍자적, 우의적, 해학적

주 제 : 탐관오리의 횡포 풍자

특 징 : 두꺼비를 풍자하여 우의적으로 탐관오리를 비판, 의도적으로 종장의 화자를 바꾸어 표현,

해 설

이 시조는 참으로 익살스러운 시조이다. 열간이 같은 두꺼비가 무슨 큰 사냥이라도 한 듯이 파리 한 마리를 잡아 물고, 높은 산에라도 오른 듯이 겨우 두엄더미 위에 올라가 앉아서 의기양양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웬일이냐, 저 건너의 산을 바라보니 하늘에 송골매가 둥둥 떠돌며 먹이를 찾고 있지 않은가. 이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얼떨결에 풀떡 뛰어 도망친다는 것이 두엄더미 아래로 뒹굴어 벌렁 나자빠지고 말았다. 그러면 서도, 그 주제에 하는 말이 또 우습다. 몸이 날랜 나이기에 이 정도로 끝났지, 큰일날 뻔했다는 것이다.

인간의 계층 관계와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동물의 약육강식으로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다. 자신보다 강하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꿈쩍 못하면서, 그래도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두꺼비의 모습에서 솔직하지 못한 위선을 엿보게 한다.

이 노래는 '파리'와 '두터비', '백송골'의 세 계층을 통해서 권력 구조의 비리를 우회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는 작품으로, 당시의 탐관오리들의 부패상을 은근히 꼬집어 주고 있는 작품이다.

